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 개요

일 시	2025. 11. 14. (금) 14:00 ~	기 록 자	양 해 인
장 소	홍성청소년문화센터 교육실		
재 적 위 원	7명 (박종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공석), 김지혜, 서상범, 변승기, 최정훈, 임희영)		
출 석 위 원	5명 (박종태, 김지혜, 서상범, 최정훈, 임희영)		
그 밖의 참석자	(간사) 홍성청소년문화센터 팀원(양해인) (주무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청 청소년정책팀 주무관(김은주)		
회 의 개 요	1. 성원 보고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3. 현안보고 4. 안건심의 5. 기타 안건 6. 폐회		

□ 회의록

(성 문화센 터)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임희영입니다. 제2차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 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범 청운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지혜 충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 부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정훈 홍성의료원 산부인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은주 충남도청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팀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변승기 위원님께서는 워크숍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안내가 왔고요. 그럼 위원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이제 요즘 날씨가 너무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가 이번 감기가 되게 독해가지고 다들 고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을 좀 잘 보전하면서 균형 있게 좀 일하시면 행복하게 좀 지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원님들 만나 봐서 반갑고요. 예 인사 말씀 같음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명의 위원님 중 4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보고되었음을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 원 장)	예 홍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2025년 제2차 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성문화센터 현황보고 발의 해주세요.
(성 문화센 터)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현안보고입니다. 홍성청소년문화센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아동 청소년 성교육 전문 기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금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25년 7월 1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시설로 분리 배분한 위탁 기간으로 26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위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함께하는 직원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청소년문화센터장 임희영, 팀원 양해인, 한우경, 유승숙 입니다. (직원 인사) 한우경, 유승숙선생님은 2025년 9월 1일자로 성문화센터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오셔서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성문화센터)	네, 맞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오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고 현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26년 12월 31일 위탁이 만료되는데, 이 위탁이 마감에 임박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 혹은 민간에 위탁 운영 공고에 대해 2026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간으로 가거나 법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나요?
(성문화센터))	운영비, 인건비는 국도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변동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서비스원에서 부가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성문화센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부가급여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위수탁 재계약에 따른 소속시설 분리로 인하여 법인 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기존 법인지원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성문화센터)	정액급식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이 있습니다만 법인 지원이 만료되면서 인건비 잔액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성문화센터 내 직원이 2명으로 인건비 잔액이 남아있어 예산 변경을 통해 부가급여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에 정원이 다 차게 되면 인건비 잔액이 미발생하여 인당 7-80만원 정도로 발생하는 부가급여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1인당 월 8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굉장히 큰 건데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법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의 검토는 없었나요?
(부 위원장)	근로계약을 하는데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불가능한가요?
(성문화센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따로 없었으며, 신규 채용 관련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부가급여에 대한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신 자료를 보니 명칭이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성문화센터로 바뀌었다는건가요?
(성문화센터)	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직원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직원에서 성문화센터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속직원이 아닌 위탁 개념으로 간다는 것 같네요. 하지만 운영 법인이 서비스원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법인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건가요?
(성문화센터)	다른 소속시설들은 법인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 민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어떤 부가급여가 지급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성문화센터)	네. 민간에서 사비를 통해 부가급여를 준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소속시설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기조를 기반으로 성문화센터까지 법인지원금을 지원해왔는데, 통합 이후 소속시설에 대한 법인지원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속시설 분리 이후 지원금이 끊긴 상태입니다.
(위원장)	2023년부터 지원이 안된건가요?
(성문화센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위수탁 계약에 변동이 없어 지급받았으나, 위수탁 재계약을 하면서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이네요.
(성문화센터)	네.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가능한 커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올해 사업 실적입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신규선생님들은 아직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9월까지 두 명이서 진행해왔으며 11월 기준 415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적 관련 추가적인 자료로 다년간의 실적자료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실적에서 회라는 기준은 출장 기준인가요?
(성문화센터)	학교 수업시간 기준 한 차시를 들어간 거죠. 2021년부터 보시면 운영 인력 대비 수익금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22년도 4명 499회에서 2900만원, 23년도 4명 447회 이때가 22년 23년도 인력이 성문화센터 근무 최다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센터장님으로 계셨고 직원들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499회 477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두 명이서 415회에서 2900만 원 수익을 올린 거죠. 정말 뼈를 갈아서 운영을 했고 당진이나 서산으로 늦어도 9시 4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은 서산에서 교육하고 천안으로 넘어가서 교육하고 하루종일 들고 오는 날도 있을정도로, 관용차량 바퀴가 터질 듯이 달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근데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화센터)	그러면 저희가 공공요금 등 운영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여기보다 더 열악한 센터가 있나요? 성문화센터들이 보통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나요?
(성문화센터)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나, 다른 센터에서는 강사풀을 키우고 교육료를 높여 외부 강사를 교육에 내보내 수익 창출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공공의 영역에 있다 보니 교육비를 너무 높여 놓으면 또 그것을 다 교육을 일반 다중에게 교육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소 제공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성문화센터)	도에서 임차료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차료 지원 외에 실질적인 공과금이나 세금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성문화센터)	국도비 운영비 안에 약 8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가요?
(주무관)	도청 내 재정 여건상 무작정 올리기는 힘들지만 내년 중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기세 같은 것들까지 직원들이 돈 벌어서 내야 한다고 하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갈 에너지가 없어져요. 실제 대상자를 만나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고급인력들인데, 모든 노력과 열정이 수익금 창출에 소비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성문화센터)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2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운대학교 캠퍼스 부스 운영, 청소년 수련과 연계해서 흥성군 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약 1,000명 대상 진로 박람회 부스 운영 및 홍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주민복지 박람회 약 1500명 방문한 행사에서 부스 운영 및 홍보를 진행하고 성문화센터장으로서 군수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업무소진예방차원에서 힐링문화데이를 갖고 재난 및 화재 대비 예방훈련도 진행하였습니다. 현황보고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총청남도 흥성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2025-02호총청남동청소년성문화센터2차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센터측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더 열심히 했다는 게 드러나는 예산서네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작네요.
(부위원장)	해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업비를 남겨서 넘겨오시는 건가요?

(성문화센터)	<p>네 거의 천만 원 정도 넘겨서 오는데요. 저희가 생활하는 성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3월 이후에나 진행이 되거든요.</p> <p>학교는 3월까지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기 때문에 벌어도 4월은 돼야 수익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내 공공운영비가 딱 3월까지 밖에 안돼서 이후에는 잘못하면 전기요금을 못 내게 되는 상황이니 거의 좀 잉여금을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p> <p>근데 내년부터는 이 금액으로 가지고 저희가 부가급여를 줄 어느정도 가져 올 예정이거든요.</p> <p>사회서비스원에서 법인지원금으로 받던 금액을 이제 못 받으니 저희가 수익을 창출한 금액에서 지원금 부가급여를 가져가게 되니 조금 빽빽한 상황이 될 수 있죠.</p> <p>모든 부가급여를 다 주기는 어렵고 정액급식비만해도 1년에 870만원이거든요.</p>
(위원장)	아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지만, 어쨌든 부가급여에 대한 내용은 잉여금 안에서 정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거죠.
(위원장)	두 명이서 네 명이 창출할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료와 같은 부분은 도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비스 인력으로서 대상자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이 없어야 할 것 같거든요.
(박종태 위원)	<p>그거는 한번 따져는 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차비나 관리비 전기료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다 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은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예산 상황을 판단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추경이라도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의견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게 이게 부가급여와 관련해서 이번에 재위탁이 되면서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출연금으로 지급받던 법인지원금을 일종의 복리후생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p>
(성문화센터)	전직원 5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p>이번에 다시 채용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p> <p>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임차비나 운영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차비 전기료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기에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게 성문화센터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고 인건비,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이제 사업들인데 인건비도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도비가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범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일부 보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급여 같은경우는 그거와 별개로 그냥 성문화센터가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이 되면서 서비스원에서 지원하던 그 예산이더라고요. 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했던 예산인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기존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속성 등에 따라 지원을 지속하지만 신규채용자에 있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협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p>
(성문화센터)	말씀하신 부분은 부가급여 중 하나에 속하는 보전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2024년 근무한 자에 한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외의 부가급여는 뭐가 있나요?
(성문화센터)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성과급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p>기본적인 예산 테두리 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안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줬던 성문화센터 부가급여인데,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셨던 위탁기간 만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문화센터가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공사에 위탁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계속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익금이 발생해서 이걸로 일종의 처우개선이나 부족한 운영비로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센터의 성격 자체가 공공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센터의 역량이 더 커져서 민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으로 따내는 사업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업이 운영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p>

(위원장)	<p>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이런 교육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성의식을 가져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AI와 같은 기술들 안에서 이 애들이 정말 그게 성인지 뭔지 범죄인지도 모를 정도의 되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p> <p>그런 것들을 이런 공공성을 갖고서 선생님들이 올바로 교육해 준다라는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거는 맞는 것 같아요.</p> <p>팀장님의 의중에도 그의견에도 좀 찬성하고 저도 이사회 진행이 될 때 이부분에 대한 건 좀 강하게 좀 얘기를 우선하려고 합니다.</p>
(위원장)	<p>2025년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p> <p>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5년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의 됐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p> <p>의사결정 제2항 제2025-03 2026년충청남동성청소년성문화센터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p> <p>센터측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성문화센터)	<p>26년도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본예산을 수립하여 26년 본 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p> <p>운영비지원은 25년기준으로 173,052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1차추경에 2026년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가편성 예정에 있고요.</p> <p>임차료는 26,400천원에서 27,720으로 확대편성 되었으며 처우개선비는 19,298천원에서 19,850천원으로 확대편성 되었습니다.</p> <p>수익자는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15,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잔액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은 26년 1차추경에 편성예정에 있습니다.</p> <p>안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p>
(위원장)	<p>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는 결속하도록 하겠습니다.</p> <p>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위원장)	<p>큰 변동이 없네요. 지금 예산하고 큰 차이 없고, 순세계는 현재 수익금이 넘어가는거죠?</p>
(성문화센터)	<p>네, 예상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p>
(위원장)	<p>저희 기타 영업 수익은 이제 4명이 됐잖아요. 부수적으로 잡아놓은건가요?</p>
(성문화센터)	<p>네. 올해 2,900만원이었기는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연초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잡았습니다.</p>
(성문화센터)	<p>적어보이는 금액이긴 하지만 직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안정성을 갖고 근무를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채용 후 바로 현장 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후 추가 편성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p>
(부위원장)	<p>센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직원은 빵빵이 돌 듯 강의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행정업무가 남아있고, 다른 직원은 사무실에만 있으면서 서로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누기도 했는데, 추후에 부가급여 등에 대한 건이 정리가 되면 이러한 성과급과 같은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p>
(위원장)	<p>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은데요. 2026년 충청남도 농성 전 성문화 센터 본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p> <p>여러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6년충청남도성청소년성문화센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위 원 장)

위원님들의 토론과 제언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좀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이나 어떤 토론 할 부분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부 위 원 장)

다른 지자체 보다는 충남도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많이들 한계도 있고 노력도 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 추경이라는 거로 반영을 계속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매년 그냥 확보가 되는 걸로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종태 위원)

어느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내년 본예산 이것도 사실은
센터가 계속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위수탁할때도 과도기였고 이본 예산짤때도 그렇고. 우리센터장님도 계속 근무는 하셨겠지만
내년에 또 1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딱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큰집안에서 공공성 그냥 쭉 가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 위 원 장)

그게 정답이에요.

(성문화센터)

지금 정치적으로나 지금 종교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문화
센터가 민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교육 의뢰를 안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혹시
이번에 국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늘봄학교 리박스쿨 관련해서 넥스트 클럽이 대전
성문화센터가 이슈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넥스트 클럽이라는 법인인데 종교적 성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그러한 사연을 알게 돼서 각 교육지원청,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낸 거죠. 성문화 센터에 교육의뢰 하지 말고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에
교육을 의뢰해라고 교육청에서 정식 학교로 공문을 보낼 정도로 지금 성문화 센터가 많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지않게 안정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있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가급여를 포기하더라도 공공에
있겠습니다라고 했던거는 청소년들 교육을 안전하게 올바르게 해야된다는 의지였고 변함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임차료라든지 연간 전기료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으로 가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위 원 장)

네. 팀장님 말씀대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성문화센터 운영에 전반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고견이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에 원활한 운영의 제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홍성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2차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 안건 의결 내역

① (제2025-2호) 2025년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제2차 추경예산(안)

운영위원	의 결 내 역				서 명
	가 결	부 결	수 정	기타 의견	
서상범	○				서상범
김지현	○				김지현
최재호	○				최재호
박근석	○				박근석
임희영	○				임희영

안건 의결 내역

② (제2025-3호) 2026년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본예산(안)

운영위원	의 결 내 역				서 명
	가 결	부 결	수 정	기타 의견	
서상병	○				서상병
김지혜	○				김지혜
최재훈	○				최재훈
박경래	○				박경래
임희영	○				임희영

제2차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1. 시설 운영 현황

-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근거 및 주요 활동 보고

2. 홍성청소년문화센터 사업 실적

- 2025년 사업 실적 총괄 보고
- 2025년 활동사업실적 세부보고

3.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

- 충남사회서비스원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기반하여 전출금 잔액 증액
-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에 따른 수익금 실제 발생액 증액

4. 2026년 본예산(안) 심의

- 2026년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본예산 수립
- 성문화센터 운영비(국도비), 임차료(도비), 처우개선비(도비), 찾아가는 성교육(수익금), 순세계 잉여금(전년도 수익금) 성립

5. 기타 의견

- 성문화센터 운영 안정에 필요한 도비 지원 요청 가능성 논의
- 종사자 부가급여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